

경진보는 우리 문중에 한 권만 있는 최초 족보로서 모시고자 하는 종친께 실비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미보(1739년발간 9책), 을유보(1815년발간 29책), 임인보(1902년발간 32책)는 회망 수량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회망하시는 종친께서는 대종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림사공파 수도권종회 제2차 정기총회개최



지난 6월 13일(토요일) 11시 서울 북섬소재 서울숲에서 안동김씨 안림사공파 수도권종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10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용주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성회

수석부회장의 설립취지문 낭독, 태룡 회장의 인사, 영만 안림사공파종회장의 격려사, 용주 총무의 경과보고, 감사보고, 재무보고, 안건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영만 파종회장은 격려사에서 수도권종회가 하루 빨리 활성화되고 설립취지와 같이 회관을 마련하여 안림사공파종회의 대외업무를 관장하고 현재의 오창은 묘소의 관리와 시제봉행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태룡 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하였다. 안건 토의시간에는 모든 안건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안림사공파 수도권종회는 종회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에 창립한 바 있고 창립 목적중 하나로 수도권에 안림사공파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태룡 회장(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뜻있는 종친들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하였다. 홍식 전 대종회장은 참석 종인에게 기념타월을 제공하였다.

「안림사공파수도권종회 제공」

당진군 종친회원 대종회방문



지난 6월 18일 충남 당진군 종친회(회장 재진)회원 33명은 안동김씨대종회와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김구 묘소를 참배하고 백범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였다.

종인들은 먼저 대종회에서 총렬공영정에 참배를 드린 후 태운 사무총장으로부터 대종회의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과 총렬공 묘지석과 총렬공 유훈비의 문화재등록 추진사항, 대종회의 당면 운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대종회에서 모시고 있는 구 족보 등이 보관되어 있는 서고를 둘러보았다.

효창공원으로 이동하여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백범기념관에 들러 해설사로부터 백범 선생님의 일생 동안의 행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백범 선생님의 투철한 나라사랑 정신과 불의의 서거 사진을 접할 때에는 모두 분노와 안타까움의 눈물을 적시기도 했다. 그 후 국립박물관으로 이동하여 선조들의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돌아보았다.

당진군 종친회에서는 매년 선조님들의 사당 및 산소를 참배하고 홀몸하신 업적을 되새겨보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인천종친회 제327차 월례회의 개최

인천종친회(회장 춘教)는 지난 6월 11일(목) 저녁 7시에 40여명의 종친분들과 내빈으로 대종회 홍식 명예회장, 관북 前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27차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춘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어느덧 인천종친회가 1977년도에 창립되어 3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긴 세월만큼이나 더욱더 활성화되고 발전되어야 하며 종친분들의 회원가입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였으며 내빈들의 인사말씀으로 시종 화기

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아울러 두 분의 신입종친분의 인사소개와 지난 4월에 개최된 33회 정기총회 개최 결과보고에 이어 대종보 신문을 종친전원에게 배부하였다. 인천종친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월례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두 달에 한 번 짝수달 셋째 주 목요일에 주안전철역 앞 '제주흑돈가(032-866-6886)식당'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인천종친회 제공」

제2회 안동김씨지역종친회 대항 체육대회개최

안동김씨 전국 청장년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최: 안동김씨대종회
2. 주관: 안동김씨 화성·수원종친회 (회장 재남 011-746-9906)
3. 일시: 2009년 9월 26일(토요일) 10:00
4. 장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633-1 소재 남양고등학교 교정
5. 경기종목: 배구(9인제), 400m릴레이경기
6. 참가신청: 2009년 8월 20일(대종회 02)2244-3717)
7. 준비물: 운동화, 체육복등 개인준비물
8. 참고사항: 참가비 등 비용은 화성·수원종친회에서 전액 부담하며 종친간 화목단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안동인

안림사공파종회장 장남 김관묵 교수



항생제 등 각종 의약품에 쓰이는 합성 아미노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활용가치가 큰 만큼 아미노산 개발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신종사업 중 하나다. 특히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고부가가치 아미노산 합성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뛰어난 것으로 학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나노과학부 김관묵 교수는 2007년 유가촉매를 활용한 D-아미노산 합성을 세계 최초로 개발, 과학저널 사이언스 미국학회지 JACS

에 발표하였고 유가촉매 합성법이 기존 효소법보다 경제성이 있는지를 집중 연구한 결과 효소법의 경우 열과 산(酸) 변화에 불안정한 특성 때문에 고급기술이 필요하고 환경오염에 있어 유가촉매를 통한 D-아미노산 합성법이 효소를 이용한 기존 합성법보다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우위에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김 교수는 "유가촉매 합성법은 수백가지에 달하는 전체 아미노산중 80% 이상에 적용이 가능해 효소법에 비해 기술

적용범위가 크고 합성방법이 간단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존 효소법의 경우 생산 원가가 kg당 40~50달러 수준이지만 유가촉매를 활용하면 30달러 수준으로 낮아진다. D-아미노산은 한마디로 고부가가치형 특수 아미노산으로 지금까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메이커들이 독점 생산해 왔다. D-아미노산의 하나인 D-아소류산의 경우 g당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D-아미노산은 항생제, 호르몬, 각

종 원료 의약품, 펩티드 의약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2006년~2012년 D-아미노산 시장은 14.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아미노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요소로 에너지 공급 역할을 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존재하고 각종 인공 합성 아미노산은 수백개의 종류가 있다.

관묵 교수는 안림사공파종회장 영만 씨의 장남이다.

「전 대종회 사무총장 관묵 제공」



▲ 준공식 장면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임진왜란 때 원주목사로 서 치악산 영원산성에서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부인, 아들(참의공, 時伯)과 함께 장렬하게 순절하신 문

1년간에 걸쳐 사당, 내삼문, 재실, 외삼문, 충렬비각, 충효열 정려각, 관리동, 홍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충렬비는 원주역 앞에 있던 것을 비각을 세워 이전한 것이다. 그리고 사

원주 충렬사 복원 준공식 및 제향 봉행기

숙공(梯甲, 제학공 7대손) 선조님의 위패를 모신 충렬사(忠烈祠)를 복원하고 준공식 및 제향을 거행하였다.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산402-3번지)에 22억원(도비-11억원, 시비-11억원)의 사업비로 건립된 이 건물은 지난해 3월부터

당에는 문숙공과 원충갑(元忠甲), 원호(元豪)를 함께 배향하고 있는데 이 충렬사는 본래 1669년에 지었던 것으로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강제 해체되었던 것이며, 이때 현종의 <忠烈祠>란 친필 사액(1670년 제작)은 괴산 충민사 내의 구사당에 옮겨 보관해 왔다. 준공식과 제향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 행사에는 강원도지사, 지역국회의원, 원주시장, 의회의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문중에서는 대종회장님을 비롯하여 약 50여 명이 전세버스와 승용차로 참석하였다. 준공식에서 성수(제, 문숙공 15대손) 중

친은 후손을 대표하여 괴산 충민사의 구사당(문숙공과 충무공 봉안)에 있던 현종 친필 사액을 원주시에 기증하였다. 이어 원주시 제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제향이 거행되었고 종식을 가졌다. 행사 후 전 종친은 전세버스로 원주역 앞에 있는 문숙공의 충혼을 기리는 충렬탑을 살펴보고 충주의 탄금대를 관광한 다음 괴산, 증평을 거쳐 귀경하였다. 특히 이날 버스 전세비 등 전 비용은 괴산 능촌리의 성수(문숙공 손) 현종이 제공하여 크게 감사하였다.

「기사 제공-제학공파종회」



▲ 헌액 기증장면



▲ 참석 종친들의 기념촬영



▲ 제향장면

성금을 보내 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5월 1일 ~ 8월 7일)

◎평생회비

20만원:(郡)구회(평택) (按)인교(용인) (安)재은(포항) (都)성수(의성)
계: 800,000(원)

◎찬조금

30만원:서운관정공파종회
10만원:안동시종친회, 당진군종친회 (翼)동수(안동)
(郡)준회(파주)
8만원:(按)재영(서울)
5만원:(翼)용해(인천),봉진(안동)
3만원:(翼)태인(영주)
계: 910,000(원)

※정정 「103호 회보」

- 통상회비 3만원 (翼)영수(영주)→(都)영수(영주)
- 찬조금 3만원 (按)광호(하남)→(安)선호(하남)로 바로 잡습니다

◎통상회비

20만원:(翼)효헌공종중(수원)
5만원:(都)항회(대구)
3만원:(翼)영채(양양) (提)정웅(천안),영제(이천)
2만원:(郡)송복(경기광주), 호영(평창) (典)민회(서울) (副)두열(고양시)
(文)재문(대구) (都)영수(서울), 해수(안동) (大)성무(보성)
(提)규호(괴산), 태운(청양), 남식(서산), 형식(화성), 규태(원주)
(按)회진(서울), 재신(청원), 재관(용인), 재하(충주), 재욱(대전)
경준(부천), 태형(병천), 선진(동두천), 재영(서울), 정희(강릉)
태석(남양주), 후식(서울)
(翼)태중(동두천), 태위(대구), 노수(서울), 성희(서울), 태훈(청주)
재환(서울), 용구(대구), 수석(의성), 우식(의성), 수기(의성)
두철(의성), 진수(의성), 정준(인천), 은순(의정부), 재택(논산)
(未)재식(서울)
무명 2
1만원:(文)재희(서울), 수섭(예천) (郡)재운(부안)
계:1,230,000(원)

평생회비납부자명단

(1997년 10월 1일 ~ 2009년 8년 7일)

(密)재영(서울), 영웅(서울)
(郡)원용(서울), 진복(대전), 회대(일산), 재호(서울), 준회(파주)
직승(서울), 후복(영천), 재엽(서울), 구회(평택)
(典)근성(아산), 관교(수원) (副)병찬(서울) (文)종희(서울), 재혜(서울)
(安)재은(포항) (都)회윤(대구), 동희(미국), 성수(의성) (大)창우(인천)
(提)상훈(서울), 용두(괴산), 상조(서울), 태욱(서울), 재철(대구)
복회(괴산), 준회(서울), 남용(천안), 항용(서울)
(按)해복(오창), 태무(서울), 재황(서울), 성희(서울), 재우(서울)

갑회(보성), 재학(증평), 태훈(서울), 홍식(부평), 태운(서울)
태원(괴산), 태무(삼척), 광식(여주), 인교(용인)
(翼)재수(경산), 점봉(부산), 진태(서울), 상용(서울), 정종(마산)
태진(서울), 수백(서울), 이행(부산), 창우(서울), 재기(서울)
영희(일산), 재명(서울), 상원(인천), 재용(수원), 수남(서울)
태웅(서울), 윤복(서울), 재영(수원), 영화(대구), 강식(하남)
현식(음성), 돈희(서울), 봉석(대구)

종친회를 빙자한 사기꾼에게 속지 맙시다!

최근 대종회(종친회)를 사칭하면서 족보를 편집하니 관계서류를 제출하라며 수단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종친회에서 발행한 도서를 판매 한

다고 책을 우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사기꾼의 소행이니 속지 마십시오. 족보발행이나 책자 발행은 반드시 본 대종회보에 공고됩니다.

종보구독 성금 납부안내

본 대종회보는 종친들께서 보내주시는 회비로 운영됩니다.
본 회보에 동봉된 지로용지에 자세한 사항을 기록후 통상회비(년2만원) 또는 평생회비(20만원)를 납부하여

주십시오. 회비 미납 종친께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본 회보 발송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친족간의 호칭

인동김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친족간의 친화씨의 글을 전제합니다. 지역 또는 가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생활에 맞다고는 볼수 없을지 모르지만 애매할 때 참고는 할만 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립니다.

문 동생동생간에 형제가 동생이라면 생년월일을 가려 호칭 호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혹 이름을 붙여 '○○동생, ○○형님' 하고 부르면 안되는 것이지요? (서울 성북구 김 옥동 이봉정)

답 일가간의 호칭, 특히 형제간의 호칭은 상호간의 두터운 친밀감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연령이 많다면 아우 형제이라도 너무 하대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이름을 위에 붙여서 호칭하는 것은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필요하나 직접 면대했을 때는 필요치 않습니다. *지칭과 호칭을 구별해야 하고 마땅한 호칭이 없을 때는 지칭으로 호칭을 대신함.

문 저는 늦은 결혼에 나이 어린 처를 얻다보니 처의 오빠가 2명 있는데 모두 저보다 5~7세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처가에 가면 어른들께서 처남에게 공대하여 형님으로 부르라 하십니다. 처남들은 저를 '여보게, 자네'라고 부릅니다. 처가 손주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손수라 여자는 남편에 따라 맞추고 남자는 나이에 따라 맞추다 하였으나 처가에서는 어디 그런 법이 있는지요? (관악구 봉천동 장용호)

답 처남에 대해서는 자기 처의 지대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연령에 따라 대접하고 나이 어린 처남이 처의 위라 할지라도 처남으로 호칭할 뿐이지요. 형님이라고는 안 합니다.

문 지에게 자기 처도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누님의 남편은 지형인지요. 매형인지요? (경남 함안우체국 이원정)

답 지에게 자기 처는 배우자로서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님의 남편은 지형이라 지칭하고 '새형님'이라 부릅니다.

문 자기보다 형제가 높은 사돈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개포동 정재덕)

답 형제가 높은 사돈의 칭호는 '형제사장'입니다.

문 저의 순위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관계를 질의합니다. 고모부라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아색한 것 같고 손아래 시누이 남편에 대한 호칭처럼 '오서방'이라 부르면 안되는지요?

답 순위 시누이 남편이라도 '오서방'이라고 하고 당사자 앞에서 직접 부를 때는 '남'을 붙여 '오서방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고모부라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아색한 것 같고 손아래 시누이 남편에 대한 호칭처럼 '오서방'이라 부르면 안되는지요? (중계 3동 양수열)

문 동생의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두 살 많습니다. 서로 어떻게 불러야 하고 말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중계 3동 양수열)

답 사위에게 있어 처가의 어른은 직계존속일 뿐이고 가타는 일반 사회적 관계입니다. 귀하의 경우 손아래 매부라고 하여 반말을 하거나 매부가 나이가 많고 존대를 하거나 손아래로 역시 반말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친척과 나의 관계는 배우자의 관계로 설정됩니다. 손아래 매부와 순위 처남은 남매간이지만 처가의 어른은 직계존속일 뿐이라는 전제로 그냥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이 차가 두 살이고 하니 '오서방'이 호칭이고 '허게'의 말씨를 서로 쓰면 됩니다.

문 호칭에 있어서 '이숙', '고숙'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구를 칭하는 것입니까? (지방동 임경순)

답 '이숙'이란 이모부를 뜻하고 '고숙'은 고모부를 뜻하는 지칭으로 주로 편지글에 사용하며 부를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를 때는 '새아저씨(새아제)'라 합니다.

문 저는 38세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단히 궁금한 점이 있어 두서없이 몇자 올립니다. 드릴 말씀은 저는 다섯 번째 사위인데, 넷째 사위가 저보다 다섯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형님이라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치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 결혼부터 말하면 남자 순위 동생을 형님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 전통예절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사위는 백년손'

남'이라는 속담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위에게 있어 처가의 어른은 아내의 직계존속일 뿐입니다. 가타의 아내 친척은 모두 사회적 사귀이지 사절을 따져서 위계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처남이나 처형, 처제의 남편인 동생들과는 아내와의 관계에 따라서 '형님, 동생'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대접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다섯 살 어린 순위 동생과는 당연히 벗을 타서 친구 같이 지내야 합니다. ('○○사형' 또는 동생으로 호칭)

문 고종사촌 동생의 장인에 대한 칭호는 무엇입니까? (개포동 정재덕)

답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니 '어른'이라 하면 됩니다.

문 형제간의 호칭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서 문의하오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형제 중 막내아들입니다. 저의 소생들이 만삼촌을 호칭할 때는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셋째 큰아버지, 넷째 큰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과 만삼촌만 큰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밑의 사촌들은 둘째 작은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 넷째 작은아버지 등 어떻게 불러야 올바른 호칭인지요? (울산시 동구 이형우)

답 아버지 형제간의 호칭법에 있어서 가장 큰형남인이 큰아버지의 호칭으로 불리고 그동생들은 둘째아버지, 셋째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리고 막내만이 작은아버지로 불리는 것입니다.

문 '매'와 '처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 '매처'라고 하거나 '처형의 막'이라고 하는 등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요? (경남 마산시 제일생명 경남단체 손주집)

답 처남의 막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 평상시에 '이생원, 박생원' 하는 호칭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호칭을 부르는 것이 망할인지 아니면 존칭인지를 해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산 임학빈)

답 생원이란 조선조 때의 과거제도의 하나로 생원시를 시행하여 그 합격자를 일컫는 말인데 진사와 더불어 성균관에 입학하는 자격 및 하급 관료에 취임하는 자격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즉 생원은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선비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나이 많은 선비를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 현재는 생원이라는 과거제도도 없고 하여 생원이라는 어휘는 부르는 아감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일반 적으로 학식 높으신 어른을 존칭하는 말로 보아야 하였습니다.

문 해 전인가 KBS1-TV 시청 중 처남의 며느리에게 존대하는 장면이 나오기에 처음으로 알게 되어 이 예절을 주위 여러분들에게 말했더니 하나 같이 그런법이 어디 있는지고 비웃으면서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처남의 며느리에게 존대하여야 옳은지요? (전남 여천군 소리면 배목래)

답 처남의 며느리라 하면 자기에게는 妻姪婦(처질부)로서 아래 형제나 姪待(공대)를 합니다. 연령적으로 차이가 심할 때는 下待(하대)는 하지 않고 '하소'체로 할 수 있습니다.

문 제자와 스승사이 올바른 언어예절을 밝혀 주십시오.

답 성이 다른 제자에게는 훈인 전까지는 '해라'체를 쓸 수 있으니 훈인 후에는 '하소'체를 써야 합니다.

문 어머니의 성씨를 남에게 말 할 때와 지기의 성을 남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답 모친 성을 남에게 말할 때 어는 성씨라 하고 지기의 성을 남에게 말할 때는 무슨 오가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문중 성씨를 말할 때는 '씨'자를 써야 합니다.

문 남자 동생간에도 처의 형제 사절에 따라 형님, 동생 할 수 있는지요?

답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하게 지내며 연차가 높으면 경칭을 써야 합니다.

문 여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아래입니다. 어떠한 호칭이 좋을까요?

답 '○○사형'이라 하면 좋습니다.

문 누이동생의 남편 되는 사람의 적당한 호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누이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는 '매제'라 지칭하고 누이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는 성씨를 넣어 '오서방'이라고 합니다.

문 장인이 사위를 부르거나 찾을 때 적당한 호칭은 무엇인지요?

답 성씨를 앞에 붙여 '오서방' 또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

습니다.

문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경어를 써야 하는지요?

답 평어로 호칭해야 하며 아내의 남편과 같은 처지에 있으므로 남편을 높이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므로 평어로 답함이 옳습니다.

문 시동생이 장가를 갔는데 부를 호칭과 남편의 형남에 대한 적절한 호칭을 알려주십시오.

답 시동생이 장가갔을 경우는 '사형님(아제)'이라 부르고 남편의 형남을 부를 때는 '아주버님'이라고 하고 남편의 형남을 남에게 말할 때는 '사숙'이라고 합니다.

문 사촌 형남을 제아들이 무엇이라 호칭하며, 제 아내의 이모부를 제가 무엇이라 호칭하는지요?

답 '아저씨'라 호칭하고 '당숙'이라 지칭하며, 아내의 이모부는 '처이모부'입니다.

문 자기 남편을 호칭할 때 '하배' 또는 '하저씨'라 하는데 선도할 방법은?

답 점은음의 문법없는 호칭 버릇입니다. 가정, 사회,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학교에서 생활예절의 일환으로 교육하며, 처세대 교육차원에서 법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배, 얼마'는 젓먹이 아이가 부르는 '유아어'입니다.

문 '친구의 자부'에 대한 말씨를 알고 싶습니다.

답 '친구의 아들'은 말을 놓을 수가 있으나 그 자부는 보통 사이가 아니면 아랫사람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상대에게 쓰는 말사인 보통경어를 쓰면 됩니다.

대중회 인사

退任 副會長：(翼)實敬, (郡)重猷

新任 副會長：(翼)利行(會行) 釜山宗親會長, 淳會 大邱宗親會長

新任 理事：(翼)太植(默行) (都)熙仲 釜山宗親會



YOUSUN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

21세기 건설의 푸른 미래

정직한 기업 · 신뢰할 수 있는 기업 · 재부가 탄탄한 회사
지역사랑 · 이웃사랑으로 크게 이어갈 수 있는
유선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학교/공장/오피스 전문시공(설계시공)

대표이사/기술사 김 관 교 (588)

유선종합건설 (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석동 960 골든프라자 218호
TEL. 031)238-5765-6 FAX. 031)238-5767

香 田 園 藝

경조화환 · 화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1481
TEL : 02-445-9777, 6888, 783-3166
FAX : 02-445-6999
H.P : 011-395-5327

농 장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517번지
TEL : 043-532-5674

대표 김재훈